

ISSUE BRIEFING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 구축 방안

이슈브리핑
2021. 05. 13 vol.245

연구진
조원지_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황영모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1) “우울하다 못해 화가 난다”...코로나 블루에서 레드·블랙까지 (YTN, 2021.01.19.)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91110013352

2) 질병관리청(2021). 지역별 신체 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 (보도자료)

1. 들어가며

- 코로나19로 안전, 건강 등 위협적으로 인지되는 공간들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일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공간의 축소로 누적되고 있는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은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음¹⁾
-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신조어 등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우울에서 분노, 절망감 등 부정적 심리를 보이며 정신건강의 빨간불이 켜져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의 변화와 함께 심리·정신적 측면에서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²⁾
 - 코로나19 감염 염려는 67.8%로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9년 기준 25.2%에서 2020년 1.0%p 증가한 26.2%로 나타났으며, 2020년 우울감 경험률은 2019년보다 0.2%p 증가한 5.7%로 나타남
- 최근 도시민은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로와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음
- 생산주의적 농업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6차산업, 관광, 복지 등 다기능농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활동 및 산업, ‘치유농업’이 등장하였으며, 3월 25일을 ‘치유농업의 날’로 지정함
 - 농업의 다기능성은 ‘농업이 가진 식료 생산 이외 환경, 자원, 문화, 경관, 건강, 복지에 대한 시장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의내림(Oostindie, 2015; 이명현, 2021, 재인용)
 -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함(이윤정, 2016)
- 농업의 다기능성은 농촌을 코로나로 지친 도시민의 건강 회복을 위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동의 공간으로 구성화하며, 코로나에 따른 농촌관광의 위기 극복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지속될 도시민의 자연친화적 여행 수요에 대응하

여 전북 농촌사회의 수익창출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발전 가능함

2. 치유농업 개념

- 정서 함양과 휴양을 목적으로 한 농촌체험과 농업활동에서 농업·농촌을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하면서 ‘치유농업(care farming)’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함
 - 치유농업(care farming)은 사회적농업(social farming)과 종종 혼용해 사용되고 있으나, 지향점은 상이함
 - 치유농업의 대상은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반면, 사회적농업은 ‘돌봄’, ‘교육’,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임
-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을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치유농업으로 칭하며,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가소득활동이 결합되어 추진되고 있음(김경미 외, 2013)
- 치유농업은 농업의 다기능성과 지역사회 내 농장주, 사회보호기관, 건강복지기관, 참여자 등의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치유의 두 가지 개념은 치유농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함
- 주로 동물매개치료와 사회원예치료를 실천해온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료, 재활, 교육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형태는 농장, 법인, 공공기관, 민간조직 등 다양함
-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은 다양한 목적에 맞게 유아, 초·중·고생, 성인, 노인 등과 치유·힐링이 필요한 사회심리적 환자, 장애인, 실업자, 알콜 및 약물중독자, 소외계층 등을 모두 포함함



〈그림 1-1〉 치유농업의 개념³⁾

3) 치유농업의 개념 (농사로 농사백과),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Main.ps?menuId=PS04325>

3. 치유농업법 제정 및 교육현황

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치유농업법)’이 제정되면서 치유자원 발굴,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화 및 전문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치유농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치유농업’을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치유농업사’가 수행하며, 치유농업법 제11조에서 치유농업사는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네덜란드 경우, 치유농업법을 제정하고 국가 지원기관 설립·운영, 치유농업의 서비스 품질 관리·인증하는 제도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질적 기준을 충족한 농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품질보증마크를 부여받고 있음
- 그 외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통합 위원회와 국가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농업인 치유농업 공급자 교육훈련, 치유농장 협약제도, 재정지원 등을 통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또한 지난해 5월 29일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치유농업을 제정한 지자체는 총 6개 시·도로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해당됨
 - 3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김포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양산시가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함

- 전북 조례에서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2조3호에서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음
-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는 전라북도 이외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2)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현황

- 치유농업 대상의 유형, 장애 유무 및 수준 등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유농업 실천 전문인력이 중요함
 - 노르웨이는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치유를 목적으로 농업을 이용하는 치유농업은 1980년대 국내에 소개된 후,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치유와 동물매체치유를 중심으로 치유농업이 발전하면서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은 치유의 기능으로 원예, 농작업, 산림, 축산 등 세분화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간자격증이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함
- 현재, 우리나라 치유농업 관련 교육은 대학·협회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치유농업법 제11조와 제13조에 의거하여 국가자격의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표준화된 치유서비스 개발·제공과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4. 치유농업 국내외 사례

- 치유농업이 가장 발달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치유, 돌봄, 건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영국은 원예치료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은 동물매개치료가 보편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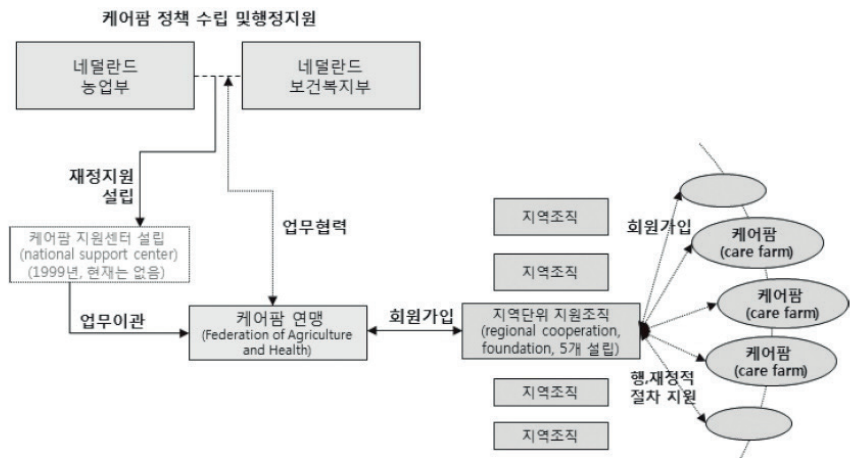
1)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로 농업의 다기능

- 4) Total number of care farms in the Netherlands from 2007 to 2018(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15694/total-number-of-care-farms-in-the-netherlands/>
Hassink, J., Zwartbol, Ch., Agricola, H., Elings, M., & Thilssen, J. (2007)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of Care Farms in the Netherlands. NJAS, 55(1), 21-36.
- 5) 김성학·장주연(2017). 네덜란드 그린케어 및 케어팜 정책 사례와 시사점. 국제산림정책토포픽, 55호. 국립산림과학원.
- 6) 김성학·장주연(2017). 네덜란드 그린케어 및 케어팜 정책 사례와 시사점. 국제산림정책토포픽, 55호.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1-2〉 네덜란드 케어팜 지역네트워크 조직 체계⁷⁾

- 7) 김성학·장주연(2017). 네덜란드 그린케어 및 케어팜 정책 사례와 시사점. 국제산림정책토포픽, 55호. 국립산림과학원.



-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과 이용은 사회지원법 제도 하에 5단계로 구성된 이용체계에서 이루어짐
- 1단계 : 거주 지역 내·외 지자체 사회지원법 부서·담당자와의 서비스 상담
 - 2단계 : 서비스 요청 개인 심사와 치유농업이 포함 가능한 수혜가능한 서비스 제공

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이후 자연과 농업활동을 매개로 신체·정신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치유농업이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치유농업이 발전하였음(Hassink et a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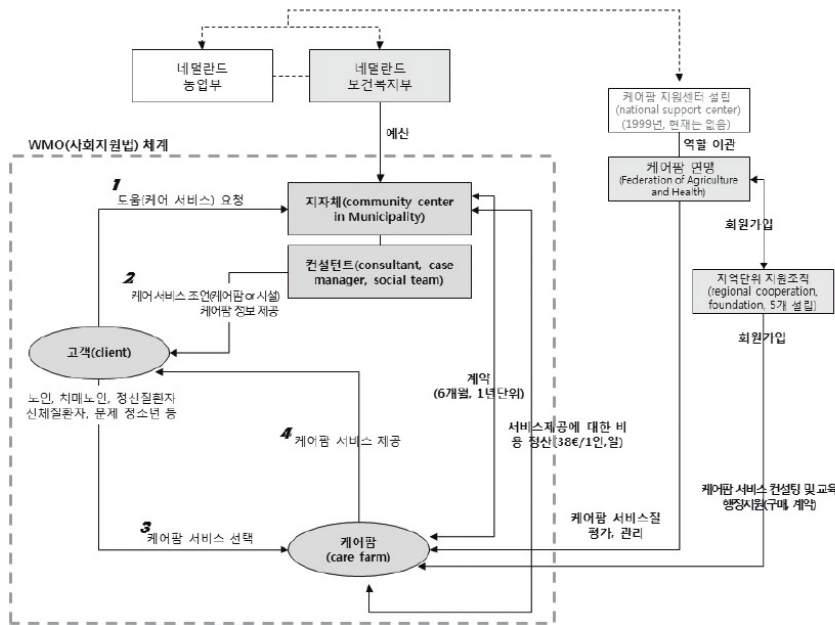
- 1998년 치유농장의 수는 75개소에서 2005년 591개소, 2018년 1,250개로 급증함⁴⁾

○ 치유농장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등은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사회지원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정책, 건강보험·건강 복지 혜택·치유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과 원예 분야’에서 치유농장과 다기능농업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경제부에 의해 이루어짐⁵⁾

○ 2010년 설립된 국가단위 네트워크인 케어팜연맹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해관계자들 간 교류·협력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지원센터가 수행해왔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인증,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⁶⁾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 구축 방안

- 3단계 : 치유농업 이용 희망 이용자는 거주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인증 받은 농장을 방문하여 선택
- 4단계 :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자체로 청구
- 5단계 : 치유농장에 제공한 서비스 횟수 및 시간을 체크하여 지자체는 농장에 비용을 지불함



〈그림 1-3〉 네덜란드 케어팜 서비스 제공 체계⁸⁾

8) 김성학·장주연(2017). 네덜란드 그린케어 및 케어팜 정책 사례와 시사점. 국제산림정책토포픽, 55호. 국립산림과학원.

○ 휴 클라인 마리엔달(Hoeve Klein Mariëndaal)⁹⁾

- 2009년 설립된 치유농장은 Hoeve Klein Mariëndaal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단체 소유의 숲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음
- Hoeve Klein Mariëndaal in Arnhem
 - Heijenoord 근처 Arnhem에 있는 농장으로 원예, 동물관리, 케이터링 조경 등을 다양한 활동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지적장애, 자폐증 환장,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어린이프로그램 : ADHD, 자폐증 아동 및 청소년, 지적 장애 등을 대상으로 가족 돌보기, 자유놀이, 실내활동(요리, 제빵, 공예 및 게임 등)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 증진, 독립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Hoeve Heidestein in Heelsum
 - 2017년 10월 1일 오픈한 두 번째 치유농장으로 Renkum시 주민들이 동물 돌보기, 환경개선, 채소·꽃·허브를 재배할 수 있는 활동으로 프로그램 구성
- Heidehuis in Schaarsbergen
 - 2018년 가을 세 번째 오픈하였으며, 치매 및 NAH환자를 대상으로 주방, 식당, 스튜디오, 정원 등이 있는 집에 거주하며 평일 5일간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9) <https://www.hoevekleinmariendaal.nl/>

〈그림 1-4〉 네덜란드 흠 클라인 마리엔달



10) 농촌의 가치, 치유농업에서 찾는다-독일의 치유농업 현황(2015.12.1., 성주신문) seongjuro.co.kr/view.php?id=32694

〈그림 1-5〉 독일 비오 호프 겐슬러



11) 2021-2차 정책세미나 전라북도 치유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자료집)

2) 독일

○ 비오 호프 겐슬러(Bio-Hof Gensler)¹⁰⁾

- 헤센주 풀다시 레험지역에 위치한 농장은 농업, 식품, 농축산 가공, 유통·판매, 체험, 관광 등을 치유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유기농 농장으로 유네스코 생태환경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농장에서 직접 판매 가능한 품목은 한정되어 현재 소고기와 사과, 가공품을 매장 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음
- 겐슬러 농장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농촌교육 제공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친환경·유기농 생산과정과 인증과정을 체험하며 친환경 생활실천의 중요성 인식,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함
- 농촌체험프로그램은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어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체험교육을 하거나 숙식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함
- 인근 농가들은 유기농 농작물을 특산물로 가공하여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농촌체험 참가자에게 직접 제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3) 국내사례

○ 순창군 쉼랜드(Sustainable Health In Life)¹¹⁾

- 전라북도 순창군에 위치한 쉼랜드는 (재)순창건강연구소, 건강장수체험과 학관, 명상관, 카페, 의농업체험관, 편백치유숲 등 다양한 건강 및 치유 교육, 체험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합공간임
- ‘신체건강에서 정신건강까지(BTS, Body to Soul)’를 목표로 노후, 건강, 가족관계, 당뇨치휴, 힐링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면역력 향상과 자연 치유력 증진을 위한 5박 6일 치유프로그램 ‘당뇨치휴(休)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면역강화 밥상, 치유먹거리·농장 체험, 산림치유, 명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 구축 방안

상, 트레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외에도 힐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힐링 컴퍼니’ 프로그램은 순창·남원·임실 3개 시군과 연계하여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08:30 ~ 08:00					공복혈당 측정	
08:00 ~ 09:00					면역강화 밥상	
09:00 ~ 10:00	등록		Tea time 및 필로산책			장내미생물 검사
10:00 ~ 11:30		태초역거리 (이계호 교수)	향기명상	청국장만들기	건강관리 강의	발마사지
11:30 ~ 12:00			산책 및 휴식			소갈 및 정리
12:00 ~ 13:00					면역강화 밥상	
13:00 ~ 14:00	휴식	1분1답 토크콘서트			뒷밭 가꾸기	
14:00 ~ 15:00	교육안내		향기테라피			
15:00 ~ 16:00	기초체력 측정, 장내미생물 검사	일련드 만들기	강력산 산림치유	필라티치 (틸밭게임)		
16:00 ~ 17:00	장내 미생물 중요성	자연명상	힐프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치유농경 체험	필라티치 시움	종료
17:00 ~ 18:00			치유 트레킹		요리실습	
18:00 ~ 19:00					면역강화 밥상	
19:00 ~ 21:00					휴식	

〈그림 1-6〉 순창 실랜드 ‘당뇨 치유 프로젝트’¹²⁾

12)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http://www.iosc.re.kr/>

○ 경산시 치유농장뜨락¹³⁾

-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치유농장 뜨락은 원예활동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과 재활을 추구하기 위한 치유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
- 2011년에 시작된 뜨락원예치료센터는 2018년 경상북도 치유농장으로 선정되어 심리·정서·신체적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원예치료사는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 초중고학생 대상 일일 또는 2개월 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 소규모부터 한 학급 규모로 연령별, 특성별 씨앗과정, 새싹과정, 열매과정, 이파리과정의 원예치료 서비스를 운영함¹⁴⁾

13) <http://www.yipari.co.kr/>

14) 정순진 외(2016). 치유농업의 이해.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림 1-7〉 경산 뜨락



5.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기본개념

- ‘농촌치유관광’은 농촌 공간 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활동이 결합된 상태로 개념화할 수 있음
-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교육, 재할, 고용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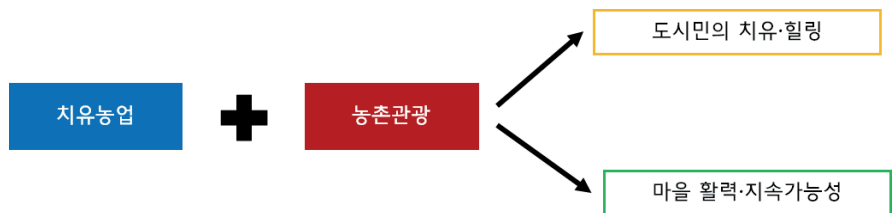
능한 다기능농업에 중점을 두고 개별 농장을 중심으로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 농업의 다기능성을 고려해볼 때 지역 내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자원의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통해 농촌은 개인뿐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재충전 등이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음
- 수(水)치유로 유명한 독일 바트 뵘리시호펜(Bad Wörishofen) 마을은 수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함께 정원 산책로, 하이킹 코스, 호텔, 놀이시설, 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를 위해 방문하는 이들의 치유 이외 휴양, 오락 등 욕구 충족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형성하며 유명한 치유관광지로 발전함(김경미 외, 2020)
- 치유농장의 농업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농촌의 경관을 활용한 휴양, 마을 체험, 놀이 등이 모두 가능한 농촌 마을은 다양한 이들을 위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과 치유가 가능한 치유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음

2) 기본방향

- 전북 농촌치유관광의 주 핵심 키워드는 ‘치유, 휴양, 체험’으로 ‘치유농장’과 ‘농촌관광’의 결합된 복합적인 경험을 통해 도시민은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건강증진의 기회를 가지며, 마을 주민의 농촌치유관광 운영·관리를 통해 마을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 농촌치유관광의 기본 방향은 <그림 1-8>와 같음

<그림 1-8> 전북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개념 및 방향



3) 대응방안

- 마을형 농촌치유관광은 마을의 기존 자원과 ‘치유농업’을 결합하는 것으로, 치유농장은 마을의 체험농장, 관광자원, 편의시설(숙소, 레스토랑, 휴게시설)과 인적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 치유농업과 체험·관광이 개인화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면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은 개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치유관광 프로그램 다양화는 마을의 자원조사를 통해 치유를 주제로 스토리텔링화가 요구되며, 이에 맞게 다양한 방문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치유농장 및 체험농장은 주로 일일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가족, 소규모 단위의 구성원이 선호하는 세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류형은 테마가 있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치유농업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 단위 농촌치유관광은 치유대상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휴양과 체험을 희망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
- 일일프로그램, 단기프로그램(2박3일, 4박5일 등), 장기프로그램(1주일) 등 체류 기간의 다양화
- 치유농장과 체험농장 운영을 위해 전문지도·교육인력, 보조 인력을, 마을 편의 시설 운영·관리를 마을주민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농촌마을의 활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성화,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촌치유관광을 위한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연계는 기존 마을 지원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치유농업이 활성화 가능함
 - 농촌치유관광을 위하여 마을 내 체험농장, 마을 경관 및 문화, 숙소, 농가레스토랑, 카페 등과의 긴밀한 협력
 -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 지난해 5월 「전라북도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치유농업을 위한 행정적·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의 치유농업 조례 제정이 필요함

〈참고문헌〉

김경미·문지혜·정순진·이상미(2013).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909-936.
 김경희 외(2020). 농촌에서 만나는 일상탈출, 쉼과 치유. 농촌관광 Insight vol.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대근(2020). 함께하면 더 좋은 실랜드!. 2021-2차 정책세미나 전라북도 치유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모색.
 김성학·장주연(2017). 네덜란드 그린케어 및 케어팜 정책 사례와 시사점. 국제산림정책토픽, 55호. 국립산림과학원.
 정순진 외(2016). 치유농업의 이해.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우울하다 못해 화가 난다”...코로나 블루에서 레드·블랙까지 (YTN, 2021.01.19.)
 농촌의 가치, 치유농업에서 찾는다-독일의 치유농업 현황(2015.12.1., 성주신문)
 질병관리청(2021). 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보도자료)
 치유농업의 개념(농사로 농사백과)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21. 05. 13 vol.245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